미네르바 인문 읽기와 토의, 토론

제 1장 1> 말 또는 글의 우위성 [플라톤의(파이드로스)], [김기림의 (문장론신강)]

학과: 중국언어문화전공

학번: 201400582

이름: 김영민

느낌점: “글이라는 것은 기억을 훈련하는데 소홀히 만들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혼속에 망각을 낳을 것,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많은 것을 읽게되어 자신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-> 즉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,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” 사람의 지혜, 지식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서, 아니면 간접적으로 책이나, 매체를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‘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하고 하는게 더 좋다’ 라는 말이 있기는 하나, 사회가 많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‘시간과 사회의 발전속도’ 라는 감옥속에서 우리는 책(글) 이라는 좋은 수단을 가지고 단기간 안에 지혜를 습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은 ‘겉으로 하는 것처럼’ 이 아니라, ‘진짜로 안다’ 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“말이랑 글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,,, 글은 사회적 기능을 한다”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, 동일한 내용에 대해 글 또는 말로 인해서 보는 사람, 듣는 사람이 다르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. 흔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, 편지…… 어떨 때에는 되게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, 어떨 때에는 정말 글쓴이의 진심을 담아서 말 대신 글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저는 글과 말은 상호작용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

토의 주제: 글 또는 말, 어떠한 관계인가…… 뭐가 더 좋은 것 인지

질문: 씨앗을 돌보고 있는 농부에 대해 예를 들었는데,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..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